

## 소수치가 잔존하는 엇갈린 교합의 수복증례

공순현\*, 우이형, 최부병, 최대균, 이성복, 권공록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각각의 사람들은 고유의 수직고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결정하는 인자로는 craniofacial tissue의 유전적 성장 잠재력, neuromuscular function, 환경요소등이 있다.

수직고경 상실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아상실로 인한 교합의 붕괴, 과도한 치아 마모 등이 대표적이다. 수직고경 감소에 따르는 증상으로는 늙어 보이는 안모, angular cheilitis 유발, TMJ 동통 등이 있다. 따라서 그 환자 고유의 수직고경을 되찾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수직고경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기계적 방법과 생리적 방법이 있는데 기계적 방법에는 치조제 관계를 평가하는 방법, 안면계측을 이용하는 방법, 기준 의치를 계측하는 방법, 그리고 발치 전 기록을 참고로 하는 방법 등이 있고 생리적 방법에는 생리적 안정위를 측정하는 방법, 발음과 심미성을 이용하는 방법, 연하 역치를 측정하는 방법, 촉감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환자가 진술한 편안감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수직고경을 결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많은 것은 환자 개인에서도 생리적 특성의 폭이 넓기 때문인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론 상하악 전치부를 외형과 생리적 기능에 조화되게 위치를 정한 후 발음을 이용하여 최종 수직고경을 정하는 방법이라 사료된다.

본 증례의 환자는 77세의 여성 환자로서 초진 시 상하악 구치부의 부분 상실로 인해 감소된 수직고경을 보였고, 전치부의 과도한 마모와 함께 하악 구치의 정출을 보였으며, 잦은 두통과 이명

을 호소하였다. 진단 모형을 통한 검사에서 붕괴된 교합평면을 볼 수 있었다. 교합상을 통해 환자의 전치부 심미성과 발음을 평가하여 상실된 수직고경의 회복을 도모하고 이 위치를 기준으로 임시의치를 제작한 후 치주적 지지가 불량한 상악 지치와 하악 절치를 발거하고 임시의치를 장착하였다. 이 때 환자는 두통과 이명의 증상이 소실되었다. 하악에 고정성 국소의치, 상악에 가철성 국소의치를 계획하고 잔존 치근에 근관치료를 시행하였다. 하악에 고정성 임시치아를 장착하기 위해 교합상을 통해 환자의 수직고경에 대한 재 평가 후 악간관계를 기록하였다. 포스트 장착과 동시에 하악에 고정성 임시 치아를 장착 한 이후 환자는 이 위치에서 편안감을 느끼고 기능적으로도 만족을 표시하여 이 위치를 기준으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상악에선 심미성을 고려하여 magnetic extension keeper attachment를 이용한 가철성 국소의치를 제작하고 하악에선 고정성 국소의치를 제작하여 장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치료과정을 통하여 환자의 기능적, 심미적 기대를 충족하는 보철 수복이 가능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